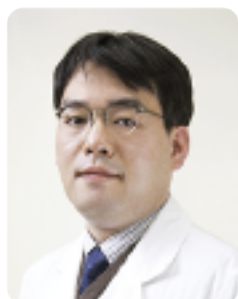


NEWS LETTER

2020년 4월 13일 Vol. 367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신장암 수술환자, 비만도와 수혈 여부도 주요 예후 예측인자’ 연구결과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가 환자의 비만도 및 수술 관련 수혈 여부 등의 임상학적 인자도 신장암 수술 환자의 예후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는 국내 신장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장암 수술 후 환자의 예후와 관련된 임상학적 인자들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자(교신저자)인 김형석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관찰할 때 예후 예측 및 신장암에 대한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환자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각각 국내 비뇨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비뇨임상연구(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2020년 3월호 및 외과계열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중 하나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2020년 4월 3일 온라인판 등 저명한 SCIE급 저널에 연달아 게재되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손경락 교수,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답답하세요?’ 마음건강지침 조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경락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며 “과도한 불안에 압도되지 않도록 불확실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소에 하던 활동과 소통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도 생활화하고 있다. 불안이 없다면 조심하지 않게 되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므로 해롭지만,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 교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최근 배포한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 건강지침’을 잘 숙지해 도움 얻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유튜브 공식 채널

[동국대병원 진료실] **코로나19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5가지**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한방 할인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오는 4월 13일부터 22일, 5월 25일부터 29일 두 차례에 걸쳐 내원객을 대상으로 한방보양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한방으로 건강하게, 코로나 극복 당신을 응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내원객들을 위한 응원에 나섰다.

행사 한방보양제는 경옥고, 공진단, 소공진단, 원방우황청심원, 쌍화탕 등이며, 행사 기간 동안 1층 로비에서 한의사 진료 상담 후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불교계는 ‘부처님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한 달 뒤인 5월 30일로 연기한 가운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법회와 교육 등 모든 행사·모임을 취소했다.



원내 식당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병원 내 식당에서 한 줄로 앉아 식사하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면접촉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개인 간의 접촉 횟수를 줄여 원천적으로 접촉 자체를 줄이는 예방법을 의미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점심식사 시간대 밀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영양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며 “직원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청결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어 안심이다”고 말했다.

